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문의: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정책기획팀 우동희 (010-9205-2029),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홍보실장 황남순 (010-9347-8103),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위원회 국장 김지혜(010-7290-4028) 날짜: 2026년 4월 20일(월)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들고,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에 설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0일(월) 11시30분 /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제안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 <u>국내 및 해외 422개 단체</u> *부산 기자회견 : 2026년 4월 20일(월) 오후 2시, 부산 미영사관 앞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13일 트럼프는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미셸 스틸은 극우 반복,반중 강경 노선을 주장해 온 인사이며 전쟁종식, 대화협력,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사회의 열망을 모욕적 언사로 짓밟아 온 자입니다. 국내 극우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미셸 스틸 지명을 반기며 “대한민국을 위한 선물”이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3. 한반도를 미·중 대결의 전초기지로 고착시키고 전장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트럼프식 압박과 수탈 정책의 선봉에 서서 주재국의 주권을 훼손할 위험천만한 인사인 미셸 스틸의 주한미대사 지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철회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미셸 스틸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거부해야 합니다.
4. 미셸 스틸 주한미 대사 지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이번 입장문에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을 비롯하여 국내 및 해외 422개 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이를 주한미대사관과 부산미영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들고,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에 설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0일(월) 오전11시30분,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 제안단체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 국내해외 422개단체 동참
- 단체연명 후 20일(월) 미대사관, 부산미영사관 전달
-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1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2 재미동포 박동규 변호사 (음성)
- 발언3 임해솔 평화너머 정책기획팀장
- 입장문 낭독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퍼포먼스 : 트럼프의 극우인사 지명 한국 국민 '아그레망 거부'

[부산 기자회견]

<연명요청> 전쟁대결 극우주의자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지명자를 거부하는 부산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20일(월) 오후2시, 부산 미영사관앞
- 주최 : 부산평화연대, 트럼프악탈저지부산행동

첨부 1. 입장문 및 연명단체

첨부 2. 발언문

첨부 3. 사진

첨부1. 입장문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들고,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에 설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 철회하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스틸 전 의원이 지명되었다. 미셸 스틸은 극우 반북반중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온 정치인이자, 공화당 내 친이스라엘 강경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미셸 스틸은 ‘북한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고, 종전선언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또한 한국의 대만 관련 군사지원을 강변해 오기도 했다. 이승만 독재미화 다큐인 ‘건국전쟁’을 후원하며 미국내 상영을 도와준 인물이며, 윤석열 지지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극우네트워킹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일부 극우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미셸 스틸 지명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한 선물”이라며 공개적으로 환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사를 주한미 대사로 지명한 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 압박과 대북 적대시 정책,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굴레에 가두고 동북아의 전쟁 전초기지로 악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압박과 수탈의 선봉에 설 미셸 스틸의 지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부당한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역시 관성적인 수용 태도를 버리고, 주권에 기초하여 꼼꼼히 검증하고 아그레망 부여를 거부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주한미대사들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야기해왔다. 일례로, 2020년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해리 해리스는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의 불씨를 살리려는 한국 정부를 향해 한미 워킹그룹의 통제를 받으라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2025년 캐빈 김 대사 대리는 정부 안팎에서 빗발치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요구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사훈련 지속’ 발언을 인용, 이것이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이라며 오만한 정치관여 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강경 극우 정치인인 미셸 스틸이 대사로 임명될 경우 주권국의 정책에 간섭하고 제동을 거는 수직적인 정치개입이 한층 더 극단적으로 강화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일방적인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6,000억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강탈하였으며, 여기에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까지 떠넘기며 한국의 안보를 인질 삼은 악탈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나 악탈지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적대정책을 폐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냉전 대결을 끝내는데 협력하는 한미관계를 원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하여 민생을 살리는 한미관계를 원한다. 한국의 주권과 평화가 제대로 실현되는 한미관계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극우 정치인을 주한미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미셸 스틸과 같은 인사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결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전 세계를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부당한 관세 장벽과 군사적 위협, 패권 유지권을 위한 전쟁 정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위험한 광기에 편승해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몰아넣을 미셸 스틸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트럼프 정부는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방위비 분담 강요, 군사적 전초기지화를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굴욕적 동맹 논리에 기대어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평화와 주권을 해치는 대결형 인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하라.

2026년 4월 2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사)긴급조치사람들,(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사)대전민예총,(사)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사)양심수후원회,(사)오월어머니집,(사)우리민족,(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사)평화의 길,(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21세기체게바라,4.3범국민위원회,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5.18민족통일학교,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부상자회호남지부,5.18유족회전남도지부,6.10만세운동유족회,6.15남측위원회언론본부,6.15창원,6.15학술마당,6.15구례지부,6.15나주지부,6.15담양지부,6.15목포지부,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AOK 뉴욕,AOK 한국,Coam Trading House Inc. in Coquitlam, BC, Canada,KAPAC,Korea Policy Institute,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뚝돌,Seattle Evergreen Coalition,SUNY at Buffalo,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in US,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가농광주대교구연합회,가톨릭농민회,강남향린교회,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거창민중연대,건양 광주전남지부,건치광주전남지부,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 참교육동지회,경남대동문공동체,경남민주교수연대,경남여성연대,경남자주연합,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참교육동지회,경남평화너머,경상대학교민주동문회,고성희망연대,광장연합정치부산연대,광주YMCA,광주YWCA,광주공감연대,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광주민청학련동지회,광주불교연합회,광주전남평화너머,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시민연대,광주전남시민행동,광주전남자주연합(준),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광주평화연대,광주평화재단,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광주흥사단,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국민주권당,국민주권당광주시당,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금강산평화잇기,길가,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남녘현대사연구소,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이랑북이랑,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농민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노후희망유니온,뉴코리아,단군민족

평화통일협의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대뉴욕지구호남향우회,대전교육연구소,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사회선교위원회,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럼’,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전평화여성회,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대한도덕회,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독립유공자유족회,독일함부르크촛불행동,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학실천시민행동,두박이,마당극단‘줄다’,마산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멸종반란,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몸깨침,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민들레,민자통광주전남회의,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종교협의회,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서부지역노정상연합,민주노정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민주누리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민주당경남도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반도평화위원회,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민주당,민청련동지회,민화협라오스,반미투쟁본부,반민특위기념사업회,반일행동,반제여성행동,범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보험이용자협회,부경대학교민주동문회,부민협동지회,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산그린트러스트,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부산민예총,부산민주시민협의회동지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중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회,부산예수살기,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부산자주연합,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부산지하철노동조합,부산참교육동지회,부산평화너머,부산평화연대,부산학부모연대,불교평화연대,불력회,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빈들장로교회기후정의평화위원회,빈민해방실천연대,사람과교육,사월혁명회,사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새언론포럼,생명평화교회,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민예총,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서울진보연대,세균전미군기지남구수영구대책위,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민중행동,세종여성회,스프링세계시민연연대,시민모임독립,시민언론민들레,시민인권위원회,시애틀진보연대,실천불교승가회,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양산진보연합,양심과인권‘나무’,언론비상,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론시국회의,여민포럼,여순항쟁서울유족회,열린사회희망연대,열린포럼,영등포소비자저널,예장뉴스,오렌지카운티호남향우회,오월광장,오월민주여성회,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왕당구클럽,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여성회,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울산진보연대,울산평화너머,울산평화너머반미의물결,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원불교평화행동,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운최인,자민통위,자유언론실천재단,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자주시대길동무‘새날’,자주연합,자주연합광주지부,자주연합대전준비위,자주통일평화워싱턴연대,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자주통일평화연대엘에이,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자주평화통일뉴욕연대,자주평화통일시애틀연대,자주평화통일시민회의,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자카르타시민연대,자카르타촛불행동,자주평화통일미주연대,재)해관문화재단,재단법인들꽃,재독일남부글뤽아우프북지회,재미동포전국연합회,전공노동자본부,전교조전남지부,전국예수살기,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대학생연대부산지부,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회의경남지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광전연맹광주시농민회, 전농광주전남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농전북도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민주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여농강원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광주전남연합, 전여농전북연합, 전여농제주도연합, 전여농충남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정의당,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전남도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조국혁신당전남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종교평화포럼, 지구별사람, 진보당, 진보당경남도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대전광역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진보당서울시당, 진보당울산시당, 진보당전남도당, 진보당충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진주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참교육동지회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창녕진보연합, 창원대민동창우회, 창원민예총, 창원진보연합, 창원 촛불시민연대,

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 천사네,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대전교구민족화해위원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초록교육연대, 촛불연대, 촛불행동멜번,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트럼프약탈저지부산행동,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대전세종충남본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빈들공동체교회, 평화통일센터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풍두레, 풍물굿패소리결, 프랑크푸르트평화모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 한겨레부산주주독자클럽,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내, 한민족유럽연대, 한반도평화의길, 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살림경남, 함께걷는길벗회, 함석헌사상연구회-워싱턴, 함안진보연합, 함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 호주시드니평화소녀상연대, 호주한인교육문화센터_총 422개단체

첨부 2. 발언문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트럼프 행정부가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하여 인준을 요청한 것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미셸 스틸은 ‘북한정권은 독재 체제이고 결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며 북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한국에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전쟁동맹을 주장하는 인사이다. 또한 이승만 독재미화 다큐인 ‘건국전쟁’을 후원하며 미국내 상영을 도와준 인물이다.

북한을 오직 적대와 제재의 대상으로만 보고 중국을 적으로 보는 '냉전형 강경파'를 파견하는 것은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지명자는 특히 한국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극우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의 부임은 한국 내 극우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극우세력의 심각한 준동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의 평화 외교 기조를 무력화하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가는 불순한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미셸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는 지명자가 부임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인 투자 강요와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 압박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미셸 스틸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셸 스틸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정(1964발효.한국발효1971) 제9조는 접수국(한국)은 언제든지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없이 외국 공관장이나 그 직원이 불만인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받아들일수없다고 통고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그 미셸 스틸 대사 지명철회를 즉시 통고하기바란다.

박동규 재미동포 변호사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미셸 박 스틸 주한 미 대사의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 상정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위해 미주에서 활동하며 고국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해온 재미동포 박동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미셸 박 스틸의 실체를 알리고자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반중 반북 반공을 자신의 정체성이자 정치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가 대사로 임명될 경우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동포 사회에서는 그가 제2의 존 볼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지명자는 애니천과 CPAC Korea, 한학자와 통일교 고든 창, 모스턴과 같은 미국 내 극우 세력, 그리고 전광훈, 전한길과 같은 국내 윤여게인 세력과 연계된 인물로 미주 동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임 기간 중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고, 그의 미 의회 연설을 주선했고, 그날을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을 미화한 영화 건국전쟁의 미 의회 상영도 주선했고, 3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참여한 종전 반대 서한을 함께 발표하고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 법안 추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과 북한에 대적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인물입니다.

특히 대사 지명 발표 직후 최근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이 대만 방어를 도와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기고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굴복이라고 극단적으로 폄훼하고 내정간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한반도 주변의 외교 문제들을 대화와 협력의 틀이 아닌 대결과 적대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한국계 또는 한국어가 통하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친한파 인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오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북한 역시 스틸 대사 지명자의 과거 언행들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인선 과정과 흐름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민주 동포 사회 역시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해 온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과 지역구의 상원 의원 등을 통해서 미국의 시민 유권자, 납세자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위에서 말씀드린 우려가 충분히 미국 조야에 제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미셸 박 스틸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중 대북 정책 조율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명 철회를 설득하거나 적어도 임명 동의가 미 중간선거 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해솔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정책기획팀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드디어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의 미셸 박 스틸입니다.

주한미대사 내정자 미셸 박 스틸이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말이 유창하다면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벌이는 침략전쟁의 시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과연 국익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1년이 넘는 공석 후 발표된 인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고심을 들여 미국의 전략과 이익을 실현할 인사를 내정했다고 봐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미셸 박 스틸이 한국계라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측근으로 마가, 극우 성향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로는 다양성 정책 반대, 여성의 임신중지권 반대 등 전형적 공화당 정치인의 행보

외교 사안, 국제관계에서도 초강경 대중국견제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2024**년 미셸 박 스틸의 3선 도전 선거에서 스틸을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틸 내정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스틸은 하원의원 시절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반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 뿐 아니라 틱톡 금지 법안, 중국의 해운 물류 데이터를 차단하는 법안 등을 추진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주한미대사 지명자의 한반도 평화 관점입니다. 미셸 박 스틸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반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을 지지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다며 국내 정치 개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

미셸 박 스틸은 한국 내 극우 세력과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을 미화 찬양하는 역사왜곡 영화 <건국전쟁>의 상영회 장소를 마련해준 것이 스틸 당시 하원의원이고, 이미 극우들은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내정을 두손들어 반기고 있습니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41조**는 외교관의 ‘접수국 법령 준수’, ‘접수국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국제법이지만 분명한 원칙입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미 투자,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 참여 등 미국의 동맹 압박이 산적해있습니다. 극우 주한미대사의 부임,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첨부 3. 사진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임해솔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정책기획팀장





김혜순 양심수후원회 회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쟁대결 극우주의자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지명자를 거부하는 부산 시민사회 기자회견